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선택 현황과 수익률 평가 : 퇴직연금 사업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강성호 선임연구원, 임석희 연구원

요약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도입되어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적이 공시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전지정운용제도에 의한 수익률은 분기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2023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공시된 업권별 지정운용자산(적립금), 적용자 현황, 수익률을 살펴보고, 사전지정운용 도입 이후 업권 간 퇴직연금 시장지배력 변화 방향을 살펴봄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이하 '지정적립금')은 2023년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 5,520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초저위험(89.9%) 중심으로 운용되는 특징을 보임
 - 위험수준별 지정적립금 운용 비중을 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원리금보장형인 초저위험 상품이 89.9%로 가장 높고, 저위험 5.4%, 중위험 3.2%, 고위험 1.4% 순으로 나타남
 - 지정운용적용자는 2023년 6월 508명에서 12월 479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지정적립금 비중에서의 마찬가지로 은행업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비중이 급증함
- 적립금의 1년(6개월) 운용수익률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험업권에서 가장 높았으며, 위험상품 수익률에 대한 위험관리(표준편차)도 보험업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분석됨
 - 1년(6개월) 운용수익률은 10.13%(3.53%)였으며, 업종별로는 보험 11.91%(3.59%), 증권 10.23%(3.60%), 은행 9.17%(3.33%)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수익률 표준편차를 통해 업권 간 위험관리 정도를 살펴보면, 보험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초저위험 상품에서보다 위험상품에서 표준편차가 낮아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남
-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수익률은 위험수준과 무관하게 보험업권에서 높았는데, 이는 동 제도의 수익률이 업권의 특성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운영 능력에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동 실적은 해당 기간(2022년 7월~2023년 12월)에서의 투자 환경과 1년(6개월)이라는 운용기간 설정에 따른 결과로, 경제상황 및 운용기간의 차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는 있음
 - 다만,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업종으로 평가받는 보험업권이 타 업권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운용 기관 및 투자 상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1. 서론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6주의 대기기간이 경과하면 사전에 지정해 둔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제도임
 - 상품의 만기 도래 후 4주 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것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내에도 운용지시 없으면 적용됨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과 IRP형에만 적용되며, 투자위험에 따라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¹⁾
- 동 제도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도입되어 1년간 시범운영(2022년 7월~2023년 6월)을 거쳐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적이 공시됨
 -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디폴트옵션제도로 운영되는되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 수익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도입됨²⁾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전지정운용제도에 의한 수익률은 분기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공시됨
- 이에 본 고에서는 동 제도의 업권별 지정운용자산, 적용자 현황, 수익률을 살펴보고, 사전지정운용 도입 이후 업권간 퇴직연금 시장지배력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2.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선택 현황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이하 '지정적립금')은 2023년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 5,520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은행업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복')의 비중이 급증함
 - 업권별 지정적립금 비중은 2023년 말 은행 84.3%, 근복 7.6%, 보험 4.7%, 증권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속도(증가율)를 보면 근복이 2023년 3분기부터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험이 빠르게 늘어남
 - 한편, 2023년 12월 지정적립금(12.6조 원)은 DC·IRP형 적립금(2022년 말 143.5조 원) 기준으로는 8.7% 수준이었으며, 가입자들이 운용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정적립금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2022년 말 335.9조 원³⁾)기준으로 보면 3.7% 수준임

1) 초저위험 상품은 '정기예금 또는 보험회사 GIC 100%', 저위험 상품은 '펀드 40%+정기예금·GIC 60%', 중위험 상품은 '펀드 70%+정기예금·GIC 30%', 고위험 상품은 '펀드 100%'로 구성됨(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7. 26),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7. 5),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3)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2022년 말 기준이 공시된 가장 최근 자료이며, 연간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이보다 40~50조 원 높을 것으로 추정됨

〈표 1〉 업권별 지정적립금 및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단위: 10억 원, %)

내용	시점	은행	보험	증권	근복	전체
사전지정 운용 ¹⁾	'23년 3월	245 (81.3)	1 (0.3)	55 (18.3)	0 (0.0)	301 (100.0)
	'23년 6월	992 (90.2)	6 (0.5)	102 (9.2)	0 (0.0)	1,100 (100.0)
	'23년 9월	4,400 (86.2)	200 (3.9)	214 (4.2)	291 (5.7)	5,104 (100.0)
	'23년 12월	10,584 (84.3)	591 (4.7)	417 (3.3)	960 (7.6)	12,552 (100.0)
DC· IRP ²⁾	'22년 12월	91,424 (63.7) <11.6>	16,177 (11.3) <3.7>	31,756 (22.1) <1.3>	4,164 (2.9) <23.1>	143,521 (100.0) <8.7>

주: 1) 시범운영기간(2022년 7월~2023년 6월)을 포함하여 2023년 4분기까지 판매·운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운용 실적임(2023년 4분기 기준 306개 상품 중 300개 상품이 판매·운용 중)

2) 가장 최근 공시자료인 2022년 12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임

3) ()는 전체 대비 비중임

4) < > 안은 '22년 12월 DC·IRP적립금 대비 '23년 12월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의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업무편람·지침(moel.go.kr)/2023년 4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를 활용하여 작성함(이하 동일)

○ 위험수준별 지정적립금 운용 비중을 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초저위험 상품이 89.9%로 가장 높고, 저위험 5.4%, 중위험 3.2%, 고위험 1.4% 순이며, 이는 사전지정운용이 주로 원리금보장형으로 설정된 것을 보여줌

- 업권별로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한 비중을 보면 2023년 말의 경우 근복 9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 90.5%, 보험 87.8%, 증권 56.6% 순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에 대한 투자 비중이 88.7%(대기성자산 제외 시 85.4%)라는 점에서 사전지정운용의 초저위험 비중인 89.9%는 전체 적립금의 운용 형태와 유사함

〈표 2〉 업권별·위험수준별 지정적립금 비교(2023년 12월)¹⁾

(단위: 10억 원, %)

구분	투자위험	은행	보험	증권	근복	전체
사전지정 운용	초저위험	9,574 (90.5)	519 (87.8)	236 (56.6)	957.9 (99.8)	11,288 (89.9)
	저위험	564 (5.3)	42 (7.1)	77 (18.5)	1.1 (0.1)	684 (5.4)
	중위험	318 (3.0)	22 (3.7)	66 (15.8)	0.3 (0.0)	406 (3.2)
	고위험	128 (1.2)	8 (1.4)	38 (9.1)	0.3 (0.0)	175 (1.4)
	전체	10,584 (100.0)	591 (100.0)	417 (100.0)	959.7 (100.0)	12,552 (100.0)
퇴직연금 전체 ²⁾	원리금보장 ³⁾	154,400 (90.4)	82,900 (95.2)	56,600 (76.7)	4,000 (97.6)	298,000 (88.7)
	실적배당	16,400 (9.6)	4,200 (4.8)	17,200 (23.3)	100 (2.4)	37,900 (11.3)
	합계	170,800 (100.0)	87,100 (100.0)	73,800 (100.0)	4,200 (100.0)	335,900 (100.0)

주: 1) 2023년 4분기에 판매·운용되고 있는 306개 상품 중 판매·운용 중인 300개 상품에 대한 분석임

2) DC·IRP적립금에 대해 업권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 구분이 공시되지 않아 2022년 12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전체를 활용함

3) 원리금보장에는 대기성자금을 포함함

4) ()는 위험수준별 비중임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상품 지정운용적용자(이하 '적용자')는 2023년 6월 508명에서 12월 479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지정적립금 비중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업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근복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⁴⁾
 - 업권별 적용자 비중을 보면 2023년 말 은행 82.4%, 근복 6.6%, 보험 5.8%, 증권 5.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자산운용을 하지 않는 가입자 비중이 은행업권에 많음을 보여줌
 - 2023년 2월부터 적용자가 발생한 근복의 경우 3분기에 보험업, 증권업의 적용자 수보다 많았으며, 은행과 유사하게 근복의 적용자는 만기 도래한 금융상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줌

〈표 3〉 업권별 사전지정운용상품 지정운용적용자 수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은행		보험		증권		근복		전체
'23년 6월	0.161	(31.7)	0.073	(14.3)	0.275	(54.1)	-	-	0.508 (100.0)
'23년 9월	3,211	(82.3)	227	(5.8)	180	(4.6)	284	(7.3)	3,901 (100.0)
'23년 12월	3,946	(82.4)	278	(5.8)	248	(5.2)	318	(6.6)	4,790 (100.0)

주: 1) 시범운영기간(2022년 7월~2023년 6월)을 포함하여 2023년 4분기까지 판매·운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운용 실적임(2023년 4분기 기준 306개 상품 중 300개 상품이 판매·운용 중)
2) ()는 전체 대비 비중임

3. 업권 간 수익률 비교

- 2023년 12월 기준 사전지정운용상품의 1년(6개월) 운용수익률⁵⁾은 10.13%(3.53%)로 나타났으며,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11.91%(3.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⁶⁾
 - 위험수준별로 1년(6개월) 운용수익률을 보면 초저위험 상품은 4.56%(1.77%), 저위험 상품은 7.69%(2.64%), 중위험 상품은 10.91%(3.91%), 고위험 상품은 14.22%(4.85%)로 위험수준이 증가할수록 수익률도 높아짐
 - 업권별로 1년(6개월) 운용수익률을 보면 보험이 11.91%(3.59%)로 가장 높고, 증권은 10.23%(3.60%), 은행은 9.17%(3.33%) 순으로 나타남
 - 특징적인 점으로 보험업권의 수익률은 고위험, 중위험 상품에서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보험업권의 위험수준별 1년(6개월) 운용수익률은 초저위험 4.83%(2.01%), 저위험 '없음'⁷⁾(2.60%), 중위험 13.74%(4.17%), 고위험 14.70%(4.93%)로 나타나 동일위험 수준에서 타 업권보다 수익률이 높음을 보여줌
 - 한편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전체 수수료는 투자수익률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약 0.5% 범위로 추정되어, 1년과 6개월 각각 업권별 수수료는 보험, 증권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임

4) 위험수준별 지정운용적용자 비중은 〈부록 표 1〉을 참조함

5) 사전지정운용방법 수익률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은 공시시점의 적용이율로 하며, 펀드상품은 과거기간 수익률로 함. 펀드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 평균하며,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 평균하여 공시함(금융위원회(2022), "사전지정운용제도 FAQ")

6)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의 업권별 비교는 〈부록 표 2〉를 참조함

7) 분석대상 기간 동안 보험업권의 저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없어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음

- 업권별 1년(6개월) 수수료율은 보험 0.69%(0.47%), 증권 0.61%(0.56%), 은행 0.43%(0.47%) 순으로 나타남

〈표 4〉 업권별·투자기간별·위험수준별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

(단위: %)

운용기간	구분	은행		보험		증권		전체	
		수익률	(수수료)	수익률	(수수료)	수익률	(수수료)	수익률	(수수료)
1년	초저위험	4.41	(0.00)	4.83	(0.00)	4.59	(0.00)	4.56	(0.00)
	저위험	7.28	(0.26)	-	-	8.05	(0.39)	7.69	(0.35)
	중위험	9.77	(0.51)	13.74	(0.72)	10.20	(0.67)	10.91	(0.54)
	고위험	14.41	(0.71)	14.70	(0.86)	14.05	(0.80)	14.22	(0.74)
	전체	9.17	(0.43)	11.91	(0.69)	10.23	(0.61)	10.13	(0.51)
6개월	초저위험	1.64	(0.00)	2.01	(0.00)	1.67	(0.00)	1.77	(0.00)
	저위험	2.62	(0.30)	2.60	(0.37)	2.68	(0.38)	2.64	(0.35)
	중위험	3.47	(0.51)	4.17	(0.56)	4.00	(0.60)	3.91	(0.54)
	고위험	4.75	(0.74)	4.93	(0.69)	4.87	(0.78)	4.85	(0.74)
	전체	3.33	(0.47)	3.59	(0.47)	3.60	(0.56)	3.53	(0.51)

주: 1) 평균 수익률(수수료)은 공시자료에서 제시된 상품별 수익률을 단순 평균함

2) '근복' 가입자에게서는 사전지정운용 상품 판매가 2023년 2월부터 진행되어 6개월 이상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음

○ 한편 수익률 표준편차를 통해 업권 간 위험관리 정도를 살펴보면, 보험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초저위험 상품에 서보다 위험상품에서 표준편차가 낮아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음

- 초저위험 상품에 대해 1년(6개월)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보면, 보험이 0.362(0.111)로 타 업권에 비해 높아 위험관 리가 취약하였는데, 이는 최근 퇴직연금의 머니무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전략의 결과로 이해됨
- 이에 반해 고위험 상품에 대해 1년(6개월) 투자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보면, 보험이 1.163(0.839)로 타 업권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보험업에서 고위험상품에 대한 위험관리가 안정적이었음을 방증하고 있음

〈표 5〉 업권별·투자기간별·위험수준별 사전지정운용상품 수익률의 표준편차 및 최대/최소값

운용기간	구분	은행		보험		증권		전체	
		표준편차	(최소, 최대)	표준편차	(최소, 최대)	표준편차	(최소, 최대)	표준편차	(최소, 최대)
1년	초저위험	0.031	(4.36, 4.46)	0.362	(4.60, 5.25)	0.135	(4.35, 4.78)	0.211	(4.35, 5.25)
	저위험	0.830	(6.50, 8.40)	-	-	1.773	(5.55, 11.19)	1.423	(5.55, 11.19)
	중위험	1.584	(7.03, 11.17)	1.381	(10.89, 14.65)	2.240	(5.84, 14.65)	2.445	(5.84, 14.65)
	고위험	2.605	(11.80, 20.01)	1.163	(13.65, 15.95)	2.998	(7.36, 18.00)	2.703	(7.36, 20.01)
	전체	4.048	(4.36, 20.01)	4.198	(4.60, 15.95)	4.122	(4.35, 18.00)	4.133	(4.35, 20.01)
6개월	초저위험	0.027	(1.59, 1.68)	0.111	(1.76, 2.17)	0.030	(1.59, 1.69)	0.181	(1.59, 2.17)
	저위험	0.777	(0.11, 3.62)	1.413	(-1.31, 3.64)	1.588	(-1.31, 5.54)	1.352	(-1.31, 5.54)
	중위험	1.178	(-0.76, 4.67)	0.821	(2.30, 5.23)	1.177	(2.01, 7.21)	1.108	(-0.76, 7.21)
	고위험	0.859	(2.21, 5.62)	0.839	(3.25, 6.68)	0.987	(1.77, 6.46)	0.902	(1.77, 6.68)
	전체	1.374	(-0.76, 5.62)	1.494	(-1.31, 6.68)	1.613	(-1.31, 7.21)	1.514	(-1.31, 7.21)

4. 시사점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이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지정적립금 및 적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퇴직연금 운용행태를 감안하면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지정적립금은 2023년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 5,520억 원으로, 지정운용적용자는 2023년 6월 508명에서 12월 479만 명으로 급증함
 -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정적립금과 적용자 수는 운용상품의 만기도래와 함께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이는 사전지정운용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할 것임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전에는 금융투자업에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도입 초기 시점에서 볼 때 상품구성뿐만 아니라 운용면에서 보험업권의 성과가 다소 높았음
 - 원리금보장형인 초저위험(89.9%)으로의 쏠림현상은 제도 도입 취지 면에서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2022년 주식시장의 불안과 같은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음
 - 2022년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4.2%로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10년 연환산 수익률로 본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각각 2021년 2.19%, 4.09%에서 2022년 1.95%, 1.78%로 실적배당형이 오히려 감소함(부록 표 2) 참조
-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수익률은 위험수준에 무관하게 보험업권에서 높았는데, 이는 동 제도의 수익률이 업권의 특성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운영 능력에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동 실적은 해당 기간(2022년 7월~2023년 12월)에서의 투자 환경과 1년(6개월)이라는 운용기간 설정에 따른 결과로, 경제상황 및 운용기간의 차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는 있음
 - 다만,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중시하는 업종으로 평가받는 보험업권이 타 업권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운용 기관 및 투자 상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부록

- 위험수준별 지정운용적용자 비중을 보면 초저위험 상품이 88.1%로 가장 높고, 저위험 4.9%, 중위험 4.2%, 고위험 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정적립금 비중의 특성과 유사함
 -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한 비중을 업권별로 보면 2023년 말 근복이 9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이 89.5%, 보험이 87.5%, 증권이 51.7%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지정운용적용자를 통해 본 사전지정운용의 특성은 지정적립금 운용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부록 표 1〉 업권별·위험수준별 사전지정운용상품 지정운용적용자 수 및 비중(2023년 4분기)

(단위: 천 명, %)

투자위험	은행		보험		증권		근복		전체	
초저위험	3,532	(89.5)	243	(87.5)	128	(51.7)	317.4	(99.8)	4,221	(88.1)
저위험	179	(4.5)	15	(5.4)	40	(16.1)	0.3	(0.1)	234	(4.9)
중위험	144	(3.7)	13	(4.6)	44	(17.7)	0.2	(0.1)	201	(4.2)
고위험	90	(2.3)	7	(2.5)	36	(14.5)	0.2	(0.0)	133	(2.8)
전체	3,946	(100.0)	278	(100.0)	248	(100.0)	318.0	(100.0)	4,790	(100.0)

주: 1) 2023년 4분기에 판매·운용되고 있는 306개 상품 중 판매·운용 중인 300개 상품에 대한 분석임

2) ()는 위험수준별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업무편람·지침(moel.go.kr)/2023년 4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를 활용하여 작성함

-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의 2022년 수익률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1.86%)이 가장 높고, 근복(1.29%), 생명보험(1.07%), 은행(0.27%), 금융투자(△2.03%)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은 주식시장 불황으로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14.2%로 급감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이 높은 증권(금융투자)업에서 음(-)의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2년은 주식시장 불황기의 결과여서 업권 간 평가가 어려우므로 장기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5년 연환산 수익률은 생명보험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금융투자가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2년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4.2%로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10년 연환산 수익률로 본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각각 2021년 2.19%, 4.09%에서 2022년 1.95%, 1.78%로 실적배당형이 오히려 감소함

〈부록 표 2〉 업권별·투자기간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 비교

(단위: %)

운용기간	구분	은행	보험		증권(금융투자)	근복	전체
			생명	손해			
1년	원리금보장형	1.71	1.90	2.02	2.00	1.86	1.83
	실적배당형	△13.31	△13.27	△12.54	△15.26	△16.26	△14.20
	전체	0.27	1.07	1.86	△2.03	1.29	0.02
5년	전체	1.36	1.76	1.70	1.57	1.64	-
10년	전체	1.78	2.04	1.97	2.06	1.99	-
(2021)	원리금보장형	-	-	-	-	-	2.19
	실적배당형	-	-	-	-	-	4.09
(2022)	원리금보장형	-	-	-	-	-	1.95
	실적배당형	-	-	-	-	-	1.78

자료: '고용노동부/정책소개/정책자료실/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참고하여 재정리함